

시선을 끌지 못하면 당신의 영상은 사라진다

유튜브 7초에 승부하라

팀 스테이플스·조시 영 지음, 이윤진 옮김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성공하려면 처음 몇 초 안에 시청자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영상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멋진 풍경과 반짝이는 햇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숲 이미지를 천천히 보여주며 시작하는 영상이 있다고 하자. 이것으로는 무엇에 관한 영상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처음 몇 초 안에 이 영상이 말하려는 것이 뭔지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떠나버린다. 세상에는 보아야 할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당신의 영상은 사라진다.”(본문 중에서)

오늘의 시대를 특징짓는 키워드 가운데 ‘동영상’이 있다. ‘동영상의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누구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루에만도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쏟아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 세계에서 대부분의 동영상은 잊힌다는 의미다.

광고의 홍수 속에서 주목받는 영상을 만드는 전략을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공유 횟수 5000만에 달하는 인기 영상 제작자 팀 스테이플스와 베스트셀러 작가 조



시 영이 발간한 ‘유튜브 7초에 승부하라’가 그것. 팀 스테이플스는 축구 스타 호날두가 노숙자로 변장한 광고 영상으로 헤드폰 브랜드 ROC가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일조했다.

유튜브가 대세인 오늘날 영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목받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저자들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9가지 성공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공유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려는 것이다. 이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의다. 온라인에서 바이럴리티가 전성기였던 때 다섯 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뮤직비디오, 아이돌 영상, 충격과 공포, 몰래카메라, 코미디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공유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이의 감정을 건드려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여기에 이기심도 있다.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은 타겟층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제공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자들은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변장한 호날두. 이 영상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조회수 3000만 뷰를 달성한 브랜드 영상이 되었고, 누적 조회수는 1억 뷰를 넘겼다. <매경출판 제공>

자기 친구와 그 영상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날은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초고속으로 만들어지는 시대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먹히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소셜미디어는 자신만의 구별되는 목소리를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한 유명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다.”

강렬한 제목을 만드는 것도 핵심이다.

기승전결 기법보다 시작 부분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의 가장 핵심 부분을 처음 7초 안에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문화 트렌드를 접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것을 ‘파도타기’라고 하는데, 파도를 타려면 대중문화의 탄력을 받고 거기에 자신만의 변화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이밖에 각본을 뒤집어라, 플랫폼을 이해하라, 만들기 전 테스트하라 등도 숙지해야 할 전략이다.

<매경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기다림의 기술=난임으로 결혼 후 5년이 넘도록 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소설가 벨 보그스의 개인적인 심정 고백으로 시작된다. 난임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 받은 저자는 본격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 질문들은 문학, 사회학, 의학, 정치제도 등 다양한 공적인 담론으로 뻗어 나간다.

<책읽는수요일·1만6800원>

▲완벽하지 않을 용기=일본의 교육자이자 사상이 우치다 타츠루가 매년 한국을 찾아 강연하면서 한국의 교사들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를 모아 엮었다. 그의 강연은 교육분야에서 두 나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왔으며 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강연을 주제별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 시대의 어른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공생’의 마인드로, 교사는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에듀넷·1만5000원>

▲나는 중독 스펙트럼의 어디쯤 있을까?=현대인들은 알코올, 흥분제, 니코틴, 도박, 쇼핑, 음식,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안전할까? 의사인 저자 폴 토머스 중독학 ‘뇌질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고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방식의 변화, 통합의료 방법 등



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식사와 수면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치료를 실패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지 등 꼭 필요한 해법들을 담았다. <창비·1만2000원>

▲각각의 갱신, 확장하는 인민=김민선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김성수 성균관대 교수 등 20명 내외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정례적으로 남북 문학예술을 공부하는 남북문화예술연구회가 만든 책이다. ‘김정은 시대와 북한 문학예술의 지향’이라는 부제로 김정은 체제 북한 문학예술의 변화 양상을 다룬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반영된 소설작품, 2014년 이후 과학한상 소설, 탐정소설 등과 함께 모란봉악단, 선전화, 영화 등을 두루 실었다. <살림터·1만9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내 거야=한 연못에 살면서 늘 모든 게 제 것이라고 외치는 개구리 세 친구 밀턴, 루퍼트, 리디아는 매일 다뿔 연못을 시끄럽게 만드는 주인공들이다. 다른 개구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차지하는 순간, 이들이 외치는 외마디는 한결같다. 바로 ‘내 거야!’이다. 서로 자기 거라고 소리치며 영역 싸움, 소유 싸움을 벌였던 개구리들은 예상치 못한 홍수 재난을 겪은 후야, 비로소 서로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뜬다. <시공주니어·1만2500원>

▲천년손녀와 사인검의 비밀=신선들이 사는 막락궁의 어린 신선 천년손녀가 살장군, 자래와 인간 세상에서 벌이는 모험담이다. 천년손녀와 용왕의 아들 자래는 화미를 잡기 위해 모습을 감춘 사인검을 찾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 호랑이의 기운을 담은 귀한 보물 사인검으로 화미를 물리치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다. 신선 세계, 용패, 사인검 등 옛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판타지 동화로 만들어냈다. <한솔수북·1만원>



▲이게 정말 마음일까?=문득 친구, 가족,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 버린 사람들이 남겨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삶은 마음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누군가가 미워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 좋아하는 물건을 늘어놓거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들을 모은 상자를 준비해 보면 어떠냐고 제안한다. 이러한 ‘마음 처방전’ 통해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살피고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준다. <주니어김영사·1만3000원>

글쓰기로 새 세상 꿈꾼 여성 25명의 삶과 철학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장영은 지음

“어머니는 마치 온몸을 부딪칠 듯 통곡을 하시고 난 다음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단정하게 앉아 그야말로 모질게 원고지 앞에서 펜을 드시곤 했습니다.”

어머니 박경리를 기억하는 딸의 말처럼 소설가 박경리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전쟁에서 남편을,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린 아이를 잃고 한평생 많이 슬프고 크게 아팠던 박경리는 ‘글’을 쓰며 “그 무엇에도 놀리지 않으리라는 독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어디 그녀 뿐이겠는가. 글을 쓰며 삶의 의미를 찾고 필사적으로 글에 매달렸던



여성이다. 유방암을 견뎌내며 글을 쓰고 전쟁의 폭력성 등 세상에 대해 가열차게 발언하고 싸워온 수전 손벽은 “문학을 자유의 공간으로 열어갈 수 있는 여권”이라 정의한다. 또 문학은, 글 쓰는 삶을 택했기에 “국가적 허영심, 속물 근성, 강제적인 편협성, 어리석은 교육, 불안정한 유행,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으로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엮은 장영은의 저서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는 삶을

건 글쓰기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25명 여성들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이다.

책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태어난 시기, 살았던 장소도, 쓴 글의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나다운 나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쓰다’, ‘싸우다’, ‘살아남다’ 3부에 담겼다.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연방 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사회적 차별에 맞서 언제나 진보적인 의견을 내며, 대법원의 수치, 극도로 불쾌한 인간 등 술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지를 굽히지 않았던 그녀는 저서 ‘나 자신의 말’을 통해, 또 변론문과 판결문을

통해 진보란 무엇인지 명쾌하게 이야기한다.

전차와 버스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7번의 척추 수술을 비롯해 모두 22번의 외과 수술을 받았고 디에고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았던 프리다 칼로는 그 누구보다 많이 읽고 쓰고 그린 여성이었다. 쓰러졌던 자신의 삶에 보내는 찬사를 잊지 않았던 그녀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 만세!’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책에서는 또 아나키스트 박열의 연인으로 죽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가네코 후미코, 86세인 지금도 강의와 저술 활동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제인 구달, 아파트헤이트가 자행됐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여성이었지만 기득권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인종차별에 대한 글을 쓰며 노벨상을 수상한 나딘 고디머, 버지니아 울프, 에밀리 브론펜데 등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민음사·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